

“주말극 출연으로 부모님께 효도했죠”

‘하나뿐인 내편’ 박성훈

부모님 좋아하는 드라마 출연
소원 들어준 것 같아 뿌듯
나문희 선배님 존경해
나도 그런 배우 되고 싶어요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은 다들 갖지 않을까요. 고래는 직접 표현하는 편이지만 전 표현에 있어 쑥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앞으로는 잘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시청률 50%에 육박했던 KBS 2TV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에서 장고래(박성훈 분)는 나홍실(이혜숙)의 아들로 극진한 효심을 지닌 인물이다.

18일 오후 광화문에서 만난 박성훈은 “실제 성격은 고래와 비슷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겸손해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끔찍한 ‘효자’였다.

“작년 연말 KBS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을 때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이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효자 캐릭터 연기하면서 수상 소감에서 부모님 언급을 못 해 죄송스러운 마음에요. 혹시 연기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수상의 기회가 온다면 부모님을 제일 먼저 부를 생각입니다.”

그는 미니시리즈와 영화 위주로 출연하다가 주말드라마를 찍으니 반응이 확실해 달라졌다고 말했다.

“주말극 전후로 길거리에서 많이 알아봐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라 부모님 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해 주셨죠. 그전부터 꼭 집어서 ‘KBS 주말드라마 안하니?’라고 물어보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연극으로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섰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소망을 풀어드린 것 같아서



최근 종영한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에 출연한 배우 박성훈이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뿌듯해요.”

“국민사위”라는 별명을 얻은데 대해선 “근래 보기 드물게 때 묻지 않은 연애 감정, 어머니를 향한 효심, 순수함 등을 시청자들이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한다. 모두 작가님이 잘 써주신 덕분”이라며 김사경 작가에게 공을 돌렸다.

박성훈은 주말드라마에서 긴 호흡으로 연기했던 경험에 대해 “그만큼 출연자와 정도 많이 들었고, 어느 순간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고 털어놴다.

“나홍실이 강수일을 살인자이자 남편을 죽인 원수로 오해하고 있었을 때, 고래를 위해 강수일에 무릎을 꿇고 간 이식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집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런

작품에 참여하는 후배의 감정도, 시청자의 감정도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픈 날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그의 목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다.

“나문희 선배님을 존경하는데 연기를 보고 있으면 항상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렇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되겠다’ 하고 공감이 가지, ‘왜 저렇게 하지?’라는 위화감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선배님의 발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 하고 싶어요.”

드라마는 최종회에서 도란(유이 분)이 대륙(이장우)과 재결합하고 수일(최

수중)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 보육원을 여는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트렌디한 드라마가 ‘대세’를 이룬 요즘, ‘하나뿐인 내편’은 전통 가족극으로 시청층을 집결시켜 50%에 근접한 성공을 거뒀다. 콘텐츠 시청 플랫폼과 패턴이 다분화한 요즘 달성된 성과라 더 의미를 지닌다.

닐슨코리아와 TNMS에서 TV에 수상기를 설치, 본격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 1990년대부터 시청률이 50%를 넘는 드라마는 65.8%를 기록한 ‘첫사랑’(1997, 닐슨)과 가장 최근 ‘제빵왕 김탁구’(50.8%, TNMS)를 비롯해 총 28편 뿐이다.

/연합뉴스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탄생 50주년 내일 광주 양림동 펄컨마을서 특별 공개 방송

남구 서동 출신 김연자 초대

MBC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가 광주에서 특별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

18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이번 공개방송은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8개 지역 ‘이동 생방송 투어’로 최근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양림동 펄컨마을에서 20일 밤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다.

탄생 50주년을 맞은 ‘별이 빛나는 밤에’는 프로그램의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생방송에서는 이수만, 이문세, 이적, 백지영, 강타 등에 이어 제26대 별밤지기들 맡고 있는 아이돌 그룹 B1A4의 메인 보컬 산들이 진행을 맡는다.

공개 생방송 초대기수는 ‘수은등’ ‘아침의 나라’ 등으로 인기를 얻은 광주시 남구 서동 출신 가수 김연자다. 세 번의 10대 가수왕을 차지하며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다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오리콘 엔카 차트에서 1위를 15번이나 차지, ‘엔카의 여왕’으



김연자

로 불린 김연자는 이번 생방송에서 인기곡 ‘아모르 파티’ 등을 들려준다.

또 ‘길’ ‘좋은 사람’ ‘키스 먼저 할까요’로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광주출신 가수 폴 킴이 출연한다. 폴 킴은 드라마 흑기사 OST ‘꽃길’,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와 김제동의 ‘특도유’ 등에 출연했다. 문의 062-607-231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녀시대 태연, 싱글음반 ‘사계’ 24일 발매

소녀시대 태연(30·사진)이 오는 24일 싱글음반 ‘사계’(Four Seasons)를 낸다

고 1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사계’에는 동명 타이틀곡과 ‘블루’(Blue)까지 두 곡이 담겼다.

태연 신곡은 지난해 6월 솔로 미니 3집 ‘섬시 뉴’(Something New) 이후 9개월 만이다.

태연은 소녀시대 활동 외에도 ‘아이’(I), ‘레인’(Rain), ‘11:11’(일레븐 일레븐), ‘파인’(Fine) 등으로 깊은 감성을 들려줬다.

태연은 신곡 발매와 함께 오는 23-24일



잠실 체육관에서 양코르 콘서트 ‘아포스 트로피 에스...원 태연 콘서트’(s...one TAEYEON CONCERT)를 연다.

나아가 다음 달 13일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22-23일 오

사카, 27일 나고야, 5월 9-10일 도쿄 4개 도시에서 ‘태연 저편 투어 2019-시그널’을 펼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재)	00 12 MBC 뉴스 25 다큐 나는...산다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시사기획 창(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5 팔도밤산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모도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모도야 놀자 스페셜 55 문자방	00 고향경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창	50 원순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경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덕화티비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신팔균>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입맞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작 다큐멘터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07:00 너티니츠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3: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8:00 당동영 유치원1~2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탐원 구조대
09:00 뽀뽀뽀 뽀뽀로	15:45 몬카트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6:15 짝과 팡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0:30 한국기행	16:45 당동영 유치원1~2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황태 콩나물국과 진미채 어묵볶음>	17:15 마사와 곰
	17:30 로보카 폴리
17:45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토크!톡! 하니1~5	
19:00 미니특공대 X	
19:30 EBS 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대협곡 기행 2부 꽃이 피네 맞이 피네>	
21:30 한국기행 <남쪽나라 오감기행 2부 그리다, 봄>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우리만 이력가	
23:5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4:45 지식채널e	
24:50 한국영화특선 <내 머리 속의 지우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9일(음 2월 13일 乙卯)	
	36년생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48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 하느니라. 60년생 속히 결정하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쉽다. 72년생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84년생 정도를 절제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5, 51		42년생 중요한 것이 해결되면 부수적인 것은 자연히 따른다. 54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회복하게 된다. 66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78년생 남을 의식할 필요 없다. 90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세계이니라. 행운의 숫자 : 74, 15
	37년생 단순한 착각은 여러 가지 망상을 부르는 법이다. 49년생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61년생 내막은 복잡하다. 73년생 애지중지 하여 왔던 것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85년생 상대를 먼저 파악해야 완벽하게 대처 하라. 행운의 숫자 : 91, 33		43년생 갈림길에 서게 된다. 55년생 멀리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비추고 있다. 67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79년생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을 만날 수 있다. 91년생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35, 84
	38년생 너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50년생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흉이 된다. 62년생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86년생 기대했던 제안이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9, 60		44년생 소비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된다. 56년생 어렵잡아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68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80년생 쌍방이 상호적이어야만 오래 지속 될 것이다. 92년생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1, 94
	39년생 성구의 향방을 좌우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51년생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싹트리라. 63년생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포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75년생 전회회의 상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87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따르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08, 95		45년생 중흥무진 할 것이니 빠뜨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 57년생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69년생 숨은 뜻을 놓치지 말고 파악해야 하느니라. 81년생 무거운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겠다. 93년생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어렵다. 행운의 숫자 : 16, 41
	40년생 매끄럽지 못하니 탈이 나지 않게 하라. 52년생 치우쳐 있지는 않나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64년생 허황된 일이니 빨리 포기 할수록 유리하다. 76년생 준비해 왔다면 순조로울 것이다. 88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대미문의 형태로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88, 18		34년생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요청 된다. 46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끔씩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다. 58년생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0년생 재료가 좋아야 대작이 나오는 법이다. 82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3, 24
	41년생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53년생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오래가지 못 하리라. 65년생 외연에 현혹되다보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77년생 침착하게 대응 해나간다면 오히려 빠르리라. 89년생 순조롭다고 인식할 때 복병을 만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33, 83		35년생 추구해 왔던 바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47년생 마무리 하는 것이 낫다. 59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행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1년생 파종을 했다대더라도 손질이 가야 결실에 이르리라. 83년생 갈수록 그 의미가 희석되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4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항영” ☎010-9790-8237